

동족사회 노인의 시간경험

조 명 옥

동의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 교수

Aging and Temporality of Aged in a Clan

Cho, Myung Ok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eui University

Purpose: This ethnography in communication aimed to explore the changes in consciousness on time and temporality as an elderly became older. This study focused on time as a primary message systems of Edward Hall. **Methods:** The assumption of the study was that the aging body as an expression of biological time is a meta of physical, personal, and social time. Data were collected from iterative fieldwork in a clan between Jan, 1990 and April, 2007. The key informants were 13 women and men aged 70 years old or more at the beginning of study. Changes in physical time and temporality as the women's body declined in its physical function was analyzed. As the cultural context, informants' every life and the history of the clan were also analyzed. **Results:** The meta-time of the informants were constituted as follows: In the low-contextual dimension, physical time perceived as longer and personal time perceived as shorter than they were young; In high-contextual dimension, informant and residents had a polychronic perspective and aged-centered time perspectives.; In the supernatural dimension of time, sacred time were reinforced by rituals. Informants extended temporality to their springs' world and ancestors' world. **Conclusion:** As the informants recognized slugged body movements and time-limited present life, their views on their life world towards the future of spring and of the sacred world of ancestors. Thereby, their identity as a member of a clan was reinforced. This result informed us on what we should focus on when caring with older women.

Key Words : Time, Aged, Experience, Ethnography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을 구성하는 인간, 건강, 환경, 돌봄의 네 가지 개념 중에서 건강은 간호의 목표로서, 그리고 전문직 돌봄은 간호의 정체성의 근원이자 건강관리의 수단으로서 집중적으로 탐구되어왔다(Gaut & Leininger,

1990; Leininger & McFarland, 2002). 통합적 관점에서 건강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의식의 확대로 정의된 바 있다(Newman, 1996). 그렇다면 간호수요자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는 건강관념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고, 이는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경험을 밝혀내는 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Newman(1996)에 의하면 시간 개념은 필연적으로 공간 및 움직임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움직임이 축소

Corresponding address: Cho, Myung Ok, Department of Nursing, Dongeui University, 995 Eomgwangno, Busanjin-gu, Busan 614-714, Korea.
Tel: 82-51-890-1556, Fax: 82-51-890-1554, E-mail: mocho@deu.ac.kr

* This work was supported by Dong-eui University Grant, 2007AA117.

투고일 2007년 12월 1일 심사요리일 2007년 12월 2일 심사완료일 2008년 1월 24일

되어 삶의 공간이 축소될 때 주관적 시간 인식은 증가한다. 그렇다면 노화로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면 시간 지각과 공간지각은 변화할 것이고 이는 다시 건강의 변화로 이어지는 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시간경험이라는 인간의 의식 현상은 사람들이 질병과 같은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을 조직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통제하는데 도움을 준다(Sanders, 1986). 그러므로 노화에 따른 시간성 변화에 대한 이해는 궁극적으로는 순환의 고리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전환을 가져와 노인의 건강한 삶을 보존 내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답을 찾을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그동안 간호 분야에서의 시간에 관한 연구는 간호현상 이해에 기여해왔으나 몇 가지 한계 역시 지니고 있다. 그 한 가지는 시간개념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간성은 분명히 실제하고 드러나는 차원인 저맥락의 물리적 생물학적 시간, 주관적으로 지각되는 차원인 심리적 시간, 실제여부를 파악하기 힘든 고맥락의 성숙의 시간과 영적 초월적 차원의 시간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Eliade, 2003; Hall, 2001). 간호학에서의 시간에 대한 연구는 보행속도를 비롯한 움직임과의 관계에서 주관적 시간지각을 시계-시간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유사실험 연구와 구가 주를 이룬다(Newman, 1976, 1982a, 1982b; Smith, 1975, 1979, 1984, 1986). 물리적 차원의 시간은 중력과 속도에 의해 휘어지고(warped) 따라서 위치와 이동속도에 따라서 시계상의 시간이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물리적 차원에서조차도 절대적인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Hawking, 2001). 아울러 노화자체만으로 물리적 시간에 차이를 가져올 만큼의 몸의 위치변동이나 운동속도가 감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시간지각의 변화는 노화에 의한 움직임 속도자체보다는 다른 많은 요인들이 작용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물리적 시간만으로 시간의 주관성을 측정하기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초월적 시간을 위시한 여타의 시간 차원에 대한 탐구에서는 더더욱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인간의 주관성, 개별성, 독특성 탐구를 주요 목표로 하는 질적 접근이 대안으로 대두될 수 있다. 간호분야의 질적연구에서 시간은 종종 민족지에서 언급

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연구의 주제로서가 아니라 여타의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맥락 자료의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다. 예컨대, 돌봄 관행이나 죽음에의 의미부여와 같은 주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의 생활사건이나 마을의 역사로 언급되고 있다(Cho, 2003; Shin, Cho, & Kim,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 현장에 참여하여 질적인 탐구방식을 적용하여 시간의 다차원적 측면에 대한 경험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두 번째의 한계는 그간의 연구들이 문화적 맥락이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시간 경험의 다양성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통시적으로 밝혀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양한 차원의 시간에 대한 경험은 고정되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특성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제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더불어서 변화하고 다양한 양상을 띤다(Hall, 2001). 이 연구는 시간경험은 인간 건강과 생존에 있어서 주요 요소이며, 생득적으로 주어지기 보다는 사회적 요소에 영향을 받아 습득되는 문화현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시간성을 시간의 흐름, 속도, 선택, 비공식적 시간체계(Hall, 2001)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문화요소(cultural isolate)라는 시간개념을 수용하되, 인간경험이나 의식이 시대와 지역을 두루 망라하여 변화하지 않는 구조를 지닌다는 구조주의 민족지의 기본과정과는 달리 인간경험은 일정시대와 일정 사회의 산물이라는 비판적 민족지의 관점 역시 취한다.

이러한 기본 관점을 바탕으로 “노인들은 신체 노화와 더불어 시간의 다차원들을 어떻게 경험하며 이러한 경험은 그들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밝혀내고자 한다. 즉,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은 노화와 더불어 몸의 운용이 축소되면서 물리적 시간을 어떻게 지각하고, 그들의 사회적 환경과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역사적 제 요인들이 시간의 지각과 의식적 시간 초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현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동참하면서 노인들의 시각과 연구자의 시각을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구체적 목적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혈연관계에 기초하여 집단 동질성을 구축해 온 동족 마을 노인들이 노화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차원의 시간성을 어떻게 경험하는가를 탐구하는 민족지, 방법론적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Hall(2001)의 미시적 의사소통의 문화기술지 접근과 총체적 민족지의 구조기능적 접근을 접목한 통합적 연구(mixed methods)이다. 의사소통의 문화기술적 접근에서는 시간, 공간, 관계와 상호작용 등의 문화요소(primary message system)를 선택하여 연구의 초점을 확연하게 정할 수 있고, 문화요소에 대한 문화지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고맥락적 시간과 저맥락적 시간의 경험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취하였다. 한편, 이러한 미시적 접근에서 간과되는 환경적 맥락과 문화가 갖는 기능적 영향에 대한 이해는 구조기능적 접근 통해서 얻고자 하였다.

2. 연구현장과 참여자 선정

역사적 배경과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공유하는 집단에 대한 탐구가 다차원적인 시간성 파악에 용이하리라는 가정 하에 17세기 중반에 형성된 동족(clan)마을을 현지조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여기서 동족마을이란 마을 전 가구의 1/3이 동족으로 구성되고 이들이 마을의 행정과 경제를 지배하면서 주민의 일상행동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Lee, 1975)을 말한다.

현지 주민들 중에서 연구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주제보자 13명, 주제보자의 정보를 보충 혹은 확인하고 풍부하게 해주고, 맥락 자료를 제공해 줄 일반제보자를 선정하였다. 주제보자 선정의 첫째 기준은 '해당 문화에 익숙한 자'로, 연구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거나 주민들로부터 주요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노인들로 구성하였다. 주제보자 선정의 두 번째 조건은 실제적인 조건으로, 연구자가 쉽게 접근하고 연구 허락을 얻을 수 있으며 자주 방문하여 삶에 동참할 수 있어

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건에 따라 연구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노인들로 구성하였다. 세 번째는 인구학적 조건으로, 전통적 관습에 따라 환갑을 지난 노인 중에서 현지에서 마을 어른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는 노인을 주제보자의 기준으로 하였다. 이 기준에 충족하는 노인 중에서 장기간에 걸쳐 참여하고 면담할 수 있도록 인지장애가 없고 의사소통이 원활한 노인을 최종 선정하여, 연구시작 시점에서 주제보자의 연령은 74세부터 96세이었으며 남자노인 4명, 여자노인 9명이었다. 이들 주제보자 중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경증인지장애나 중증의 치매로 진행된 경우 주제보자에서 누락시키지 않고 자료수집방법을 완전관찰방법으로 변경하였다.

친족관계를 중시하고 이 관계에 따라 행동패턴이 정해지는 동족사회의 특성과 아는 사람이나 동료와의 관계를 편안하게 느끼는 노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집단 면담과 신뢰관계를 쉽게 형성할 수 있도록 눈덩이 굴리기 전략을 이용하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3. 자료수집

주제보자들과의 자료수집은 1990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진행하였으며, 각 제보자의 연구참여기간은 6-18년 4개월이었다. 제보자가 노인임을 고려하고 연구방법론의 기본 가정에 따라 참여관찰, 면담, 사회학적 조사, 기존 문서자료수집 등 다양한 기법을 병용하여 연구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요 자료수집방법은 참여관찰이었다. 물론 본 연구의 방법론적 틀의 일부를 구성하는 미시적 문화기술지는 발화된 언어를 인간 의식의 표현으로 간주하여 면담에 주로 의존한다. 그러나 초기 연구단계에서 노인들은 신체적 제약으로 면담시간을 충분히 길게 가질 수 없고,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상 구술 자료들이 꾸며진 경험(imaginary experience)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허다하여 실제경험(real experience)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면담은 보조적인 자료수집방법으로 활용하되, 참여관찰이 불가능한 사건과 상황, 과거의 자료들에 한하여 면담을 통해서 수집하

였다. 자료수집과정은 다음과 같다.

- 참여관찰은 ‘참여자로서 관찰’ 수준에서 ‘관찰자로서 참여’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연구 초기에 주민의 생활에 익숙해지고 주민의 삶에 동참하면서 주민들의 실제생활 경험을 깊이 있게 경험한 후, 연구의 초점이 좁혀지고 경험에 대한 윤곽이 파악되면서부터는 연구자의 입장을 고수하여 보다 심층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현지조사에서 주민화(being native)되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 면담은 초기에는 일상대화체의 비구조화된 서술적 면담 위주로 진행하고 분석을 진행하면서 비교, 대조, 자료 확인을 위한 반구조화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이 과정을 자료가 포화되어 시간성의 다차원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을 때까지 진행하였다.
- 맥락자료는 문화구성요소 목록을 토대로 하여 면담과 관찰 및 기록 문서를 통해서 수집하였다. 맥락자료로 동족의 계보, 동족 관련 정사와 야사 자료, 마을의 전설과 민담, 향토사 기록,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 교육 및 경제 여건, 제보자 개인의 일기와 편지 등을 수집하였다.
- 참여관찰 자료, 면담자료, 기록자료, 조사 및 기술 관찰 자료 중 동일한 내용에 대한 자료는 상호점검, 검토하여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4. 자료분석

연구의 초점에 맞추어 양질의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효율적인 현장조사를 위해 현지에서 자료를 수집하면서 자료분석을 병행하는 방법과 자료수집 후 수집된 자료를 텍스트로 작성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병용하였다. 사후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 연구주제(시간성)에 대한 정보와 맥락적 자료, 기타 자료를 구분하여 텍스트를 구성하였다.
- 연구에 포함되는 문화 요소로 시간성, 영역성, 상호작용, 기타 관련 가능성 있는 자료를 분리하였다.
- 시간성 자료분석에 초점을 두고 저맥락, 고맥락, 무의식적, 의식적 초월적 차원에 따라 분류하였다.

- 시간의 각 차원으로 분석의 틀을 구성한 후 시간의 연속성(공식적 시간), 리듬(비공식적 시간), 시간 측정(기술적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와 조사 등을 검토하였다.
- 해당 자료들을 틀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의미를 도출해 내었다.
- 공간의미(proxemics) 분석을 통하여 공간과 영역성의 의미를 도출하고, 시간성과의 연관성을 탐색하였다.
- 관계성은 상호작용의 범위와 유형, 의미전달 전략 등에 따라 분석하고 시간성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 동족의 역사, 참여자 개인의 생활사, 마을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 등 맥락자료들과 시간성의 변화 경험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5. 제보자에 대한 윤리

연구시작 전에 실제적인 마을의 수장(gate keeper) 지위에 있는 주민에게 연구목적, 진행, 진행과정, 신분의 은닉, 자의적인 참여와 참여 거부권, 연구결과의 활용도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연구 허락을 받았다. 각 제보자들에게는 면담과 참여관찰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 전 과정에서 참여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일상생활과 농사일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일반제보자는 농한기에, 농사에 참여하지 않는 주제보자들과는 제보자들이 편한 시간에 참여관찰과 면담 시간을 선정하였다. 노인들의 놀이나 여가활동, 마을 공동의 잔치 등 공개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노인의 기력을 고려하여 피로 증상을 호소하거나 징후를 보이면 면담과 참여관찰을 중단하고 휴식시간을 가졌다. 면담 내용은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녹음을 하였다. 보고서에서 제보자의 이름과 택호를 익명 처리할 것이며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표기하지 않고자 한다.

6. 연구의 질 확보

제보자의 실제경험(real experience) 자료를 얻고,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상황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누락을 막고 연구자의 주관적 의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현지노트를 작성하고, 집단면접과 참여관찰대상이 많은 경우 연구보조자를 참여시켰고 자료수집 직후에 연구자와 보조자가 상호확인 과정을 거쳤다. 현지 주민이나 제보자와 지나치게 동일화(being native)되지 않기 위해 연구자로서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관찰자로서의 참여' 수준을 유지하였다. 주제보자 이외에도 여러 관련 제보자들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고, 다양한 일상생활 사건들에 참여하고, 다양한 시간과 계절에 현지조사를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 후의 참여관찰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비교 점검하는 과정도 거쳤다. 현지조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를 분석하면서 구조화된 질문이나 개방형 질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연구대상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포괄적 자료와 연관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제보자의 시간경험의 맥락

1) 비공식적 시간 중심의 사회

주민의 핵심세력인 동족구성원들은 폴리크로닉(polychronic) 시간 즉, 고맥락적인 동족 고유의 시간 문화를 지니고 있다. 동족의 분파시조에 대한 다음 대화에서 반영되듯이 동족구성원들의 역사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연대기적 역사 즉, 공식적 시간의 역사가 아니라 동족에게 의미 있는 사건 즉, 비공식적 시간의 역사이다.

연구자: 그럼 그 할아버지는 어느 왕 때? 그게 대략 몇 년도쯤?

제보자: 아 그라자면. 그(3.0) 아/ 흠/. 그 X자 X자 어른이, 으흠. 그래 난을 만나가지고, 아/ 흐흠. 말하자면 의병을 하자면 가솔들이(1.0)/ 목심이 위태하다(2.0). 그래 가지구 그 어른은,

연구자: 아/ 그럼 어떤 난이요?

제보자: 그 어른이 의병장을 했거든, O자 O자 어른이 그

어른[X자 X자 어른] 말하자면 조부가 되시지, 두 어른이, 난이(1.0) 두 개가 낳지. 모다 두 번을 의병을 일으켰어.

연구자: 아하 임진왜란, 병자호란이요? 그럼 그 할아버지는 연세가 아주 많았겠네요. 손자랑 두 난을 다 치루었으면. 그럼 그게 몇 년등가? 할아버지로 하면 몇 대조 할아버지인가요?

제보자: 아(2.0) 그게 나로 하자면(3.0), 그라자면, 그 어른의 10대 손이지. 그 어른이[X자 X자 어른] XX공이지. 나라에서 훌륭한 이는 다 그렇게 주지. 그 XX공이 시강을 했어, 시강.

연구자: 그럼 어느 나중에 왕이 된(1.0), 어느 왕이 세자일 때(1.0)요?

지방 사료에 의하면 이 마을은 인조28년(1649년)에 서원이 세워지면서 현재의 위치에 형성되었다(Cho, 1985). 그러나 이 공식적 역사는 연구자에게만 중요했다. 제보자에게 동족의 역사는 연구자의 저맥락적 시간 즉, 어느 왕이 지배하던 시대나 몇 년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조와 분파시조가 동족의 생존을 보존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던 사건에서 시작된 것이다. 보편적인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족 고유의 역사가 주민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대화에서 드러나는 다른 특징은 연구자의 시간이 현실의 생존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할아버지의 몇 대조) 반하여 제보자의 시간은 과거 조상(그 어른의 10대손) 중심이라는 점이다. 연구자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모노크로닉(monochronic)한 시간관념에서 제기한 질문이 제보자의 동족중심의 폴리크로닉(polychronic) 시간관념과 상치되어 대화가 어긋나자, 제보자는 잠시(3.0초)동안 시간의 관점을 자신의 관점으로 전환하여 답변을 이어갔다.

주민들은 역사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시간 역시 폴리크로닉 관점을 취한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시간은 달력상의 시간이 아니라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중심이 된다.

제보자: 아래께, 아-들[아이들이] 방학이라고 OO[제보자의 딸]가 왔다 갔어. 모다 물놀이랑 가구 한데, 할

마이 보고잡다고 이리로 왔어, 암 것도 볼거두 없는데. 뭐라 왔냐, 아 그래도 할머니 보고 해안다고, 응. 좋(I.O)다구 놀다갔어.

연구자: 언제요?

제보자: 으응(I.O), 아래께.

연구자: 네? 몇 일어요? 몇 일전이에요?

제보자: 아. 아래께. 할마이 보고잡다고. 아이 밥해 줘야지, 뭐해야지, 죄다 정신없지, 한차례하고 갔어.

연구자: 주요일어요. 목요일이에요?

제보자: 응 아래께. 물놀이 보دم 더 좋다네, 할마이 보고 간게.

이 제보자에게는 자녀와 손자가 방문했던 달력 상의 요일이나 날짜 즉, 공식적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와 손자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는 여름 휴양지가 아닌 자신을 방문하여 밀착된 관계를 확증시켜주었던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 즉, 비공식적 시간이 중요한 것이다. 주민들은 이처럼 시간을 표현할 때 달력 상의 몇일이나 특정 요일이 아니라 ‘최근’의 의미로는 ‘아래께’, 다소 ‘먼 과거’의 의미로는 ‘그 전이’라는 시간 용어를 사용한다. 여기서 ‘아래께’는 2일 전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한 달 전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전이’ 역시 수개월 내지 수년전부터 제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조상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시간의 폭을 지칭한다. 이렇듯 주민이 사용하는 시간 용어는 물리적 시간 차원에서는 정확성이 떨어진다. 이는 저맥락의 물리적 시간이 제보자들에게는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관념은 시계를 근거로 한 물리적 시간중심이 아닌 의미 사건중심의 생활규칙을 구성하게 한다.

2) 노인중심의 시간

주민들의 시간에서 또 한 가지 특징은 노인의 시간이 주민, 특히 가족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우선시 된다는 것이다. 모든 일상을 노인중심으로 구성하는 생활관행에 의해 노인들은 타인의 시간을 통제하는 권력을 갖게 된다.

노인중심의 시간운영규칙은 식생활에 두드러지게

반영된다. 음식은 그것이 일상의 음식이건 제레나 명절 등의 특수한 음식이건 간에 노인에게 가장 먼저 제공되고, 가족의 식사시간은 노인의 생체시계에 정확하게 맞추어져 있다. 노인중심의 시간운영 규칙은 교육을 통해서 학습·전승되어 노인들은 일상의 시간에서 우선적인 위치를 점유하게 된다.

이웃이서 제사를 지내거나 좀 입맛 나는 음식을 헌다 하면, 어른 있는 집에 먼저 드리지. 그러면 이권 할아버지 할머니 먼저 잡셔야 한다, 꼭 이려고. 저 시렁에 얹혀 놓았다가 어른 먼저 드시고 아-들[아이들]은 낭중에, 어른 먼저 뵈이고, 잡숫고 나서, 아-들 줘라 해야 주지. 어딜 어른[보다] 먼저 [아이들에게] 줘. 밥상에서도 맞난 것이 있으면, “고기는 할아버지 잡셔야 한다” 하지. 크게도 안 해. 나지막이, 하면. 아-들은 일체 젓가락을 [고기에] 안 대.

집안 노인에게 귀한 음식을 우선 제공하고 어른보다 먼저 숟가락 들지 않고 먼저 숟가락 놓지 않는 식사 예절뿐만 아니라, 집안 어른이 “기침하시기 전에 일어나고 어른들 다 잠들기까지 기다려 잠자리에 드는” 등 모든 일상의 시간운영에서 노인들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한 제보자의 70년대 농번기에 대한 회상은 가족 전체의 생계를 유지하는 생업보다도 집안 노인의 생체시계를 더 우선시 하고 있음을 잘 드러낸다.

보리 고개, 참말로. 그제사 뭐 먹을거리가 그리 있을라고. 밀가리, 오세마냥 끈기가 있고 하던 않지. 훌떡 훌떡 떼서 그냥 툭툭 던져서 끼리면, 더워서 땀이 줄줄. 한 그릇. 그것도 국물만 훌러덩 마시고 또 일허러 가지. 어른 들이사 그래 못하지, 삼시 세 때 꼭 제 때. 한 치라도 늦을라치면 불호령이 떨어져. 일하다가도 아무리 바빠도 들어와야 해. 따순 밥에 국하고 꼭 너물하고 갖춰서.

젊은 층 주민들은 ‘고양이 손이라도 빌어야 하는’ 농번기에도 노인들이 ‘놀이삼아’ 하는 텃밭 가꾸기에 우선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한 40

대의 주민은 이른 아침에 8Km 거리의 시장에 가서 이웃 노인의 텃밭에 사용할 비료를 구입해 오고, 비료의 용도와 사용 시기, 양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창고에 쌓아둔 후에 자신의 농사일을 시작하였다. 주민들이 하루의 일부를 노인을 위해 시간을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귀한 시간을 제공한 대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인정하거나 해당주민의 부모가 노인 집단에서 주요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된다. 비용을 지불하고 노동시간을 구입하는 ‘농’의 경우에도 노인중심의 관행이 지켜진다. 노인들은 대부분 농을 사는 입장이지만 인구의 노령화로 인하여 노인들 역시 농을 제공하기도 한다. 주민들은 오전 8-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농 일을 한다. 그러나 노인의 집에 농을 가는 주민은 ‘동이 트는 시간’에 시작하여 ‘이제 집에 가라’고 할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 빨래나 청소 등 간단한 집안일을 하고 ‘해가 중천에 걸려서야(9시)’ 노인의 집에 나타나는 주민은 ‘뒹뒹이가 부족한 사람’으로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노인들은 농 일이든 자녀의 농사를 돕는 일이든 어두운 밤길에 이웃 노인을 방문하여 2시간 정도 담소를 나눈 후에 9시가 되어 일을 하러간다.

한편 주민들 사이의 농은 시장원리에 따라 동일한 양과 질의 시간을 상호 교환한다. 즉 농번기에 꼭 필요한 하루의 농 일을 제공한 주민은 수혜자로부터 자신의 농사에 꼭 필요한 시기에 하루분의 농 일을 받을 권리가 있다. 요컨대 평등한 관계에서 노동시간을 계약 관계에 의해 교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들은 이 규칙에서 자유롭다. 다음 대화에서와 같이 노인들이 농사를 돕는 일은 ‘시간을 내주는 선심’에 해당하고, 노인에게 주어진 선행에 대한 답례로 주어진다. 노인과 젊은 주민들과의 노동시간 교환은 상하관계에서 호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 민: OO 아침 어딜 가세요?
제보자: 응 나 교회, 추울까 쉼타 입었더니 덤네. 더워
주 민: [연구자에게] 같이들 가시누만요.
제보자: 더워, 쉼타 입었더니. 아이 더워, 근데 그게 뭘데?
주 민: 아 이거, XX 댁이 그전에 일 한 거 줄 거 있어서
제보자: 나 그리루 해서 올라가

주 민: 아 네(I.O)에. 내일 팜 좀 있으세요?
제보자: 응 나 그리로 해서, XX 댁이 쪽으로 가
주 민: 예예. 팜 좀 있으시면 우리 생강 좀 캐주시면, 일
손이 없어요. 요즘
제보자: 나 손가락 아파, 오늘 또 병원에 가봐야 혀

대화가 끝나고 교회로 향하는 길에 제보자는 “손가락이 아파서가 아니라 나이든 사람을 못 믿어서 품삯을 전달해 달라고 청하지 않은 주민의 행동에 노하여 농사일 도와달라는 청을 거절했다”고 진술하였다. 대화에서 제보자는 자녀가 마련해준 정성(쉐타)에 대하여 주민의 관심을 얻기를 원하였으나 주민이 이에 반응하지 않았고, 제보자가 품삯 전달의 의사를 표현했으나 주민이 이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였다. 제보자는 주민의 이 행동을 무관심과 불신으로 해석하여 일손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호혜적인 시간교환양식은 노인들이 젊은 주민의 시간을 통제하는 기제가 된다. 노인들에게 주민의 시간을 통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생활규칙으로 인하여 노인들은 자신을 위한 활동에 시간을 집중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누리게 된다.

2. 제보자들의 시간경험

1) 타자의 시간에서 자기의 시간으로

가족과 주민의 노인 중심의 시간운용 규칙과 노인의 몸의 노화에 대한 자각은 저맥락적 시간 즉, 생물학적·물리적 시간을 가족과 친족 등을 위한 사회중심의 시간에서 노인 자신에게 집중된 시간으로 구성하게 만든다. 가족 구성원들에게 맞추어졌던 24시간의 일상은 점차 노인 자신의 생체리듬에 맞추어 구성된다. 물론 이러한 자기중심의 시간구성은 노인들의 자기 생체리듬에 대한 판단에 근거하고, 생계와 가사 그리고 간단한 농사일을 자손과 이웃 친족들로부터 지원받음으로써 가능해진다.

노인의 지위로 이동하면서 가사일과 가족의 생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고, 리듬의 변화를 자각한 제보자들은 활동의 종류와 양은 젊었을 때에 비하여 현저

하게 줄인다. 제보자들의 24시간 일상은 봉당 쓸기, 식사하기, 이웃 노인과 대화하거나 음식을 나누며 놀기, 누워서 휴식하기 정도의 활동으로 채워진다. 노인들은 활동 속도 역시 줄여간다. 예를 들어 제보자들은 4시에 잠에서 깨어나지만 라디오를 듣거나 손과 발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6시에 자리에서 일어난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 시간이 줄어들면 “그날은 뭔가 사단이 나도 나”기 때문이다. 깨어나자마자 일어나는 등 일의 양과 속도를 급격히 변화시킨 제보자들이 낙상 등 사고를 경험한 것이 활동 시간을 조절하는 계기가 된다.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의 변화를 자각하여 스스로 활동의 속도와 양을 줄이기도 하지만 다음 제보자의 진술과 같이 노인들의 활동의 범위가 자의적, 타의적으로 축소된다.

늙은 게, 뭐가 늙었다(1.0) 허냐면. 맴이, 아 마음 같아선 폴짝, 응 버스가 와도 폴짝 타고, 또 폴짝 내리고 하고잡지. [그렇게 되지 않아] 아 저 늙은이 땀세 내가 못 내린다(1.0) 열개비, 앞서서 지척지척 현개. 응, 뒤에서 젊은 사람이 그런가(1.0)마냥 뒤꼭지가 그러지. 그레 서울이랑 저기 전주랑 아-들[자녀들] 다 살고 혀서 가보고 잡고 혀도 안 가지지. 아이, 그개 늙은 거야.

이렇듯 움직임의 속도가 젊은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노인들을 젊은 사람의 공간과 활동에서 벗어나게 하는 한 요인이 된다. 관계의 범위와 점유공간의 축소는 노인의 일상시간 구성을 외적인 사회적 준거중심에서 자신의 생물학적 준거 중심으로 구성하게 한다. 예컨대 70대의 제보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교류하는 범위와 시간 구성의 기준은 성별, 친족관계, 주거지역이다. 이 중에서 관계성과 시간성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친족관계 즉 사회적 조건이다. 70대중반부터 80대의 친족 여자 노인들은 매일 왕래하고 점심식사를 함께 하거나 같이 누워서 오후 휴식을 즐긴다. 인척관계의 여자 노인들은 자주 왕래하고 담화를 즐기지만 식사를 함께하거나 한 공간에서 누워 시간을 보내지는 않는다. 친인척 이외의 동 연령대 여자 노인들은 일상생활에서의 교류는 드물고 다음 진술과 같이

예외적인 특정 활동에서 시간을 공유한다.

거기[교회]가면 나이든 이들이 있어. 저기 외딴 집 할마이, 알지 저기 X가 라고[김씨네요? 저 옆에 회색 기와 집?]. 아니, 저 아래, 타성이야. 같이 시간 보내고 오고 허지. 타성이라도

그러나 90대의 노인들에게는 관계성과 시간구성의 기준에서 성별과 친족관계는 약화되고 연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현지조사 지역에서 ‘정월 굿 마당’이나 농번기 전에 열리는 ‘화전’ 등 공식적인 행사 이외에 일상에서 남자 주민과 여자주민이 왕래하는 일은 금기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회 규칙은 90대의 노인들에게는 강제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90대 중반의 여자노인과 90대 후반의 남자노인은 과거 주인과 고용인이었던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방문하여 함께 앉아서 대화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이 두 제보자의 연령은 엄격히 차별되는 두 가지 관계, 즉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관계와 남녀 관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본가와 지가의 관계에 있는 두 제보자의 대화 양식의 변화는 고령의 노인들은 사회적 규율로부터 벗어나 생물학적 조건을 더 중요하게 적용함을 보여준다.

제보자(여): 그레, 어찌 온다고 전화는 받기는 받았구만. 자세히 좀

제보자(남): 아이 여그 산, 산 문제로. 회의서 의견올(1.0). 의견을 모으기는 그레 말씀 좀 전하고. 또 OO게도 이야그를 잘 혀서 혀락 좀 받을 수 있게.

이 대화는 남자 제보자는 70대 후반, 여자 제보자는 80대 초반일 때 이루어졌다. 남자 제보자가 여자 제보자보다 3세 연하이고 두 제보자는 친족으로 남자 제보자는 지가의 구성원이고 여자제보자는 본가의 구성원이다. 남자 제보자는 하루 전에 방문 시간과 안건을 알린 상태였고 외출복 차림으로 방문하였다. 대화는 남자 제보자가 여자 제보자에게 절을 하고, 여자 제보자는 간단히 이에 응수하고 나서 시작되었다. 이 두 제보

자의 만남과 대화는 동족의 엄격한 규칙 즉, 본가-지가 상하-종속관계에 놓이는 장계직계의 원칙에 의해 지배된 것이다.

그러나 80대까지 시제나 종산의 사용 등 친족의 공식적인 일에 대한 의논이나 중요한 부탁을 위해 정중히 예의를 갖추어 친족 여자 노인을 대하던 이 남자 제보자는 마을에서 최고령 군에 속하면서부터는 다음과 같이 동등한 관계에서 대화를 이어갔다.

제보자(남): 아이 OO 님이 나이가 몇이요? 나가 이제 마을 남자로 치자면 썰로 많지.

제보자(여): 으흠. 그래. 아제가 그래 된 일로. 그러니까 난, 내말은, 그 일은

제보자(남): 아 뭐 있가니. 그 일은, 내 생각에 그렇다 싶지. 아, 그런데 OO 님이 몇이요 올게

이 상황에서 남자 제보자는 여자 제보자를 더 이상 친족 어른으로서가 아니라 고령의 동년배로서 대하고 있다. 남자 제보자는 이제 여자 제보자를 방문할 때 의복을 갖추어 입거나 절을 하지 않는다. 대화의 주제는 동족의 공식적인 일에서 두 화자의 사적인 일로 전환되었고, 상황을 고하고 허락을 얻거나 양해를 구하는 상하의 관계에서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는 동년배 친구 관계로 전환되었다. 항렬과 본가-지가의 관계에 근거한 동족사회의 상하-종속의 규칙은 고령이라는 생물학적 조건에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요컨대 관계성과 이를 매개로한 시간 구성이 친족관계, 남성과 여성의 구분, 주거지역에 의해 정해지는 사회적 지위 등 사회적 준거 중심에서 나이라는 생물학적 준거로 이동한 것이다.

노인들의 시간성과 관계성이 사회적 준거에서 벗어나 노인의 나이, 기력과 활동능력 등의 생물학적 준거에 더 의존하게 되는 현상은 친족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뿐 아니라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제보자들에게 자녀는 곧 정체성의 근간이 된다. 그러므로 한 제보자의 “자식은 있게 좋지. 뭘 해줘서가 아니라, 때마다 와서 있다가구, 명절이면 와서 산[묘]에도 가고 해서 좋고, 전화만 해도 좋아”라는 진술과 같

이 자녀와의 시간 공유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이 노인들의 일상리듬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들을 벗어나 자신의 일상리듬을 유지하고자 한다.

아이 저 아래, 모르지? 저 아래 할마이가 있어. 아래에 아들집이, 가서. 아 난 가알란다. 아고 집안에서 소피박아지. 아 못살겠다구만. 다들 일허러 나가고 나면 갑갑혀고. 어딜 나갈 수가 있다. 그래 나 갈란다. 어마이 안되요. 바빠서 버스타는데 못 데려다 드려. 어마이 못가게 할려구. 그래도 나 갈란다. 그질로 내려왔어. 아이구 좋다, 아이구 좋다. 춤을 쳤단게. [왜요?] 좋으니까. [여긴 춤고 할텐데요. 더 있다 오시지] 여그가 좋아 나 하고잡은데로 하고. 나도 그래.

낮선 자녀들의 공간에서 자신의 일상과 맞지 않는 시간을 노인들은 지루하고 억압받는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자신의 일상이 허용되는 자신의 공간에서 여유와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노인들은 자기중심의 시간을 구성하는 것이다.

2) 외적 시계로부터 내적 시계로

제보자들의 동시적 시간 즉, 상호교류를 통해 자신의 리듬과 다른 시간리듬을 동조하는 현상은 외적 시계 중심에서 내적 시계 중심으로 변화된다. 사회적 기준을 벗어나 노인 개인의 기준에 일상을 맞추는 현상과 동일한 맥락에서 제보자들은 점차 주민, 친인척, 가족 등 인적인 외부 환경과 자연을 비롯한 물리적 외부 세계의 시계에 맞추던 일상을 자신의 내적 리듬에 맞추어 간다.

제보자들의 생활리듬이 점차 고정되고, 일상성에 교란을 초래하는 외적인 자극에 대한 적응력은 줄어든다. 이로 인하여 일상적인 리듬에서 벗어나는 사건에 점차 대응하지 못한다. 이러한 몸의 변화가 노인들로 하여금 내적 시계에 일상을 맞추게 한다. 예를 들어 70대 중반에 10일 동안 교수, 학생, 기자 등 다양한 신분의 외부 손님과 친인척은 물론 친족관계가 아닌 주민들의 방문에도 각 방문자의 식성, 위치, 성격 등의 제

특성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이에 맞게 대응하였던 한 제보자가 80대 초반에는 그동안 친숙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연구자 세 명이 방문하여 4일이 지나자 일상리듬이 교란되면서 대처하지 못하였다.

개별 노인의 일상뿐 아니라 노인들 간의 교류에서도 외부자의 개입에 의한 영향력은 노인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심각해진다. 연구를 시작 한지 3년이 지난 1993년 7월에 두 연구자가 노인들의 놀이에 참여하였다. 이 때 노인들은 연구자의 개입에 방해를 받지 않고 2시간 동안 놀이를 즐겼고 대화의 주제는 노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0년 후에는 이 노인들이 “손님도 아니야 마을 사람 다 뺐다”고 인정했던 연구자 1명이 개입했음에도 대화는 중단되었다.

제보자 1: 이번에도 선생이 OO덕 드린다고 요거 가져왔네
제보자 2: 아 그래쓰까, 응
제보자 1: 그전이 왜 매번 올적마다 술이랑, 죄다 가져오고
제보자 2: 아 하 난

평소에 시간이 날 때마다 방문하고 함께 누워서 1시간 이상을 대화를 하던 두 제보자는 연구자의 개입으로 인하여 10분 정도 머물다가 헤어졌다. 외부인의 개입뿐 아니라 가족과 확대가족의 개입 역시 점차 노인의 일상을 크게 교란시킨다. “밥뚜껑을 덮어서 매일 30명이 넘는 식객을 대접했던” 생활을 집안의 부와 사회적 권위의 상징으로 여기며 자랑하던 한 제보자는 80대 중반을 지나자 동생의 방문통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응하였다.

주 민: 아이구 난 아-들[아이들]게 야단치는 줄 알았는갑요. 알고보니 칠순 넘은 할마이게 그리 야단을 쳤다요. 아이 버럭 허셔서 그런줄 알았다니께요, 아-들게 현줄.

제보자: 아이. 전할 해서 온다구. 그래 내가 뭘라 온다는 거야[응답했지]. 자기만 온 것두 아니 구 죄다 조그 자식들끼정 끝구, 아들이 있어, 아들허구, 제랑 끼정. 그러니 벌써 몇이야. 즈그끼장 하면. 열매나 정신이 없어. 그래 오지마라. 더워 내 몸 하나두

거쳐허기 힘든데. 더워 몸씨가 치는데. 오지마라. 내가 안허게 생겼어.

이 제보자는 90대에 들어서면서 “자식들이 왔던 왔다 가면, 한 번씩 다녀가면 좋긴 하지만 몸이 힘들고 정신이 사납고, 난 한일도 없고 저그가 다하고, 일하는 사람이 다 해도 다음날 몸살이 나고 아프고 해서 겁이 난다”고 호소하였다. 이처럼 점차 일상리듬의 변화에 크게 충격을 받으면서 노인들의 일상은 고정되고 자신들의 내적 리듬에 맞추어간다.

청력이 저하된 제보자들은 다음과 같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건과 시간을 고정시키고 대화를 시도한다.

연구자: 안녕하세요. 할머니, 댁이 어디세요.
제보자: 교회 안가? 교회 안가면 죄루 가, 교회가야 허
연구자: 오늘 일요일 아니예요. 할머니 교회 다니세요?
제보자: 교회 가야허. 노는 날 교회안가면 죄받아.

대화는 청력이 상실된 제보자가 연구자를 처음 만났던 논길에서 이루어졌다. 이 제보자는 그 후에도 연구자를 만날 때마다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였다. 사실상 중증 치매로 요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제보자에게는 젊은 사람(연구자)이 밖에서 일을 하지 않는 노는 날은 일요일이고, 일요일은 교회에 가는 날로 고정되어 있다.

시간이 자신의 리듬이나 의미 있는 사건에 고정되는 이러한 현상은 체력의 저하로 외부와의 교류가 축소된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기력이 저하되어 겨울 내내 집밖 출입을 하지 못했던 한 제보자와 연구자가 4월 중순에 나눈 대화는 고령의 노인들의 시간은 자연의 시간과 맞추어진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생체리듬과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건에 맞추어져 있음을 잘 드러난다.

연구자: 올 겨울 잘 지내셨어요? 춥지는 않으셨구요? 지난 번 왔을 때 보일러 기름이 많이 있긴 하던데.
제보자: 아, 응, 덩던 안해. 올게[올 해]는 이 옷 한 가지도 안 벗었어.

[중략] 아래께는 어찌 뜨거운가 새벽 1시나 됐을까, 이 거,
너무 뜨거워, 땀이 비 온 거마냥, 죄다 젖었어. 일
어나 한 참을 잠을 못자고

제보자는 지난 해 겨울의 추위에 대한 질문에 최근의 과열된 난방에 의한 더위를 언급하였다. 연구자는 과거 시점의 보편적인 현상을, 제보자는 현재의 자신에게 특수한 의미 있는 경험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겨울을 지나는 동안 제보자에게 외부 세계는 오로지 방문에 달린 작은 유리를 통해서 바라보는 정원뿐이었다. 외부세계와의 제한된 교류는 정원에서 나타나는 겨울의 상징을 통해서 계절을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겨울 추위라는 일반적인 현상은 난방이 잘된 방에서 지낸 제보자에게 무의미한 것이기도 한 것이다.

제보자들에게 자연의 순환주기는 한 때 실생활의 시간표를 작성하는 주요 지표였고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원천이었다. 백일홍이 피는 시기는 벼를 심고 가꾸고 추수하는 지표였고, 제보자들은 꽃이 피는 시기에 맞추어 마을의 농사일 진행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이 시기를 피하여 집수리 등 농사이외의 일정을 정하였다. 제보자들의 건강은 계절과 그들이 태어난 시기와의 관계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화되었고, 일상 활동을 계절에 맞추어 증감하였다. 기력이 저하되어 집밖 출입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계절에 따라 각종 유실수의 개화여부와 열매가 얼마나 열었는지, 추수할 시기가 되었는지 이웃이나 연구자를 통해 확인하곤 하였다. 제 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연과 교류를 이어간 것이다. 그러나 활동의 범위가 방안으로 제한되면서 제보자들은 뒤뜰의 유실수 개화나 담장의 파손 여부 등을 보고 오겠다는 연구자의 제안을 저지하고 “12시가 되려면 얼마나 남았는지”를 여러 번 질문하고, 누워있는 동안 책임기나 이야기를 유도하곤 한다.

일정기간 자연과의 교류 경험이 차단되면서 자연의 순환은 제보자들의 의식세계에서 벗어나고 일상시간의 운용의 기준이 되지 않고 제보자의 위장관의 생체시계만이 존재한 것이다. 이렇듯 사람들과의 관계성과 자연과의 교류에 의미를 두었던 시간들은 더 이상 제

보자들의 의식 세계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자신의 생체시계만이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

3) 감소되는 시점 시간과 가속되는 세월의 흐름

노화와 더불어 개인적 시간성 즉, 객관적 물리적 시간에 대한 개인의 지각 역시 변화한다. 순간의 시각은 감소되고 과거의 시간흐름은 가속된다. 말하자면 현재의 순간들은 지루하고 길게 느껴지지만 지나 온 세월의 흐름은 나이에 따라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지각한다. 제보자들의 이러한 시간 지각은 신체기능 저하로 인한 활동의 양과 종류의 감소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단조성에 의해서 나타난다.

아 하루가 다르게 달라져. 젊어서야 연연이나 달라질까, 나이든게 나날이 달라져. 오늘 다르구 내일 다르구. 아 세월은 어찌그리. 아 하. 옛그제 같은데, 선상님들은 몰라. 저 늙은이 한말이 뭐 말인고, 허지. 늙어봐. 그럼 아 그 할마이 그 때 한 말이 맞아, 죄다 맞아 할 때가 있어.

활동의 종류와 양이 줄어들고 시간구성이 자신의 일상으로 집중되면서 자유롭게 여유로운 시간을 지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인관계를 비롯한 환경과의 교류의 폭이 줄어들고 지루한 일상이 전개된다. 특히 옥외 활동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 겨울은 고령의 제보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겨울 날 생각을 하면 몸씨가 쳐져. 아- . 어지날고. [많이 춥지요?]. 춥지야 않지. 보일러 때고, 불도 때고, 나무도 많아. 요거 장판도 있고. 한 나도 안 추워. 뜨끈 뜨끈 한게. 아- 아직[아침에]에 늦게 꺼정 해가 게우 요기 떴다가. 아 밤이 어찌 그리도 길어.

한편으로는 다양한 활동과 관계로 인하여 분산되던 시간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현상도 시간과정을 느리게 인식하는 요인이 된다. 제보자들이 가족의 생계, 자녀 양육, 노부모 봉양을 두루 책임지던 젊은 시절의 일상은 빈틈없이 채워져 시간을 의식의 전면에 떠올릴 수 없을 만큼 바쁜 나날이었다. 노년기에 들어 활동의 양

과 종류가 축소되면서 채워지지 않는 ‘빈 시간’이 늘어나면 지나간 시간 즉, 시간의 흐름에 대한 지각은 단축된다.

젊어서 아-들이 북적거리고, 아-들 키우고 할 때는 정신도 없지만, 아 크는 거 보구 허면 알차지. 다 여우고[결혼 시키고] 한 게, 혈 일이 없어. 어느 날 보면은, 응. 손주들이랑 어쩌다 보면 훌쩍 커버렸어. 아 현 것도 없는데 어찌 그리 빨리 가. 이제 죽는 날만 남았어.

이 제보자는 자녀와의 만남이건 죽음이건 간에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져 순간의 시간이 길게 느껴졌고, 가족을 비롯하여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접촉의 기회가 줄어들어 자녀의 성장과 이웃의 노화 등 커다란 변화가 온 상태에서 접촉함으로써 세월의 속도가 빠르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요컨대 자녀나 이웃의 방문 등 원하는 바의 사건의 도래 빈도와 확실성이 줄어들어 시간의 속도는 감속되었고, 채워지지 않은 빈 시간들과 죽음이라는 필연의 사건이 압박했다는 긴급성에 의해 세월의 속도는 가속되었다.

4) 자손의 속된 시간에서 성스러운 조상의 시간으로의 확대

제보자들의 의식적 시간은 점차 조상의 초월적 세계와 미래의 자손의 세계로 확대된다. 제보자들은 고품화로 인한 몸의 기능변화와 주변 동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먼저 간 조상들의 세계와 남겨질 자손들의 세계로 관심을 분산한다. 노화와 더불어 조상-자신-자손으로 이어지는 역사성이 강화되고 결국에는 신성한 조상의 초월적 세계로 진입한다. 초월적 시간의식을 반영하는 각종 의례, 생활공간구성, 일상생활은 실재의 속의 세계와 초월적 성의 세계를 동시화 한다.

주민들에게 조상의 세계는 자손을 전제로 한 세계이고, 동족의 역사는 이 두 세계가 이어짐으로써 가능하다. 자손이 전제되지 않은 사후의 존재는 하층의 타의 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노인들은 자손의 존재 여부는 물론 자손들의 성공과 번영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자손 속에서 정체성을 찾는다. 한 제보자의 결혼에 대한

진술의 변화는 나이에 따라 조상의 초월적 세계가 제보자의 의식 속에서 실재하게 되는 과정을 잘 드러내 준다.

아이 못써, 어찌, 그래 지금이사 혼자서 지내면 좋다 싶지만 늙으면 안되야. 외로워. 안되야. 저 아래께 양노원이 눌러갔어. 다들 여그서 몇몇이서. 갔어, 아이 불쌍해 할마이 하나가 눈물을 통통 흘림성, ‘난 한 개도 없어, 다 가져갔어’ 함성, 아이고 불쌍혀. 돌볼 이 없어. 다 가져갔다구 하더만. 지금사 좋지 싶아두, 늙으면 나이 먹음상 외로와, 가야 혀, 안되. 자식 있음 열매나 좋다구, 같이 살던 안해도, 전화만 해도 좋구 ‘어마이 호미 들었다 소리만 들리면 나 뛰쳐 내려가요’ 그렇게 좋은거야 자석은 (1992년 7월)

아 누구, 아-아, 선상. 아이고 그려, 안죽 안갔어? 혼자는 안되야, 죽으면, 죽어서 누가 제사지낼 이 없어. 무서워. 떠들면 어찌. 아이 안되는 거야. 빨리 혀(2005년 3월)

제보자가 70대 중반과 80대 말에 진술한 두 내용은 모두 결혼은 정체성 확보의 자원으로서의 자손 획득의 수단이다. 첫 번째 진술은 노후의 부양자원으로서의 자손을, 두 번째 진술은 사후 조상으로서의 지위 확보의 자원으로서의 자손을 의미한다. 두 진술 모두 시점은 미래를 향하고 있으나 현존의 자손의 세계에서 초월적 조상의 세계로 이동하였다. 한편 이러한 제보자들의 시간의식은 결혼에 대한 60대 주민들의 다음 진술에 반영되는 시간의식과도 차이가 있다.

아이 어때쓰까. 일도,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혀서 좋긴 현대. 아이 혼인해야 해. 어마이 계시다 했지, 어마이 생각혀야 해, 어마이가 걱정이 많아서 안되. 다 여우어야 편치부모 맘이. 어마이 생각혀서 빨리하셔.

이 60대 주민의 입장에서 결혼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완성하는 일이다. 이상의 세 진술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실재 경험세계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결혼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의 방향은 60대 주민과 70대 제보자는 현실에, 제보자가 80대

후반에 들어서는 곧 다가올 미래에 맞추고 있다. 관계는 모두 부모-자녀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그 방향은 부모→자녀에서 자녀→부모로, 그리고 매래 자손→조상으로의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즉, 60대 주민은 자녀를 향한 부모로서의 현실에, 70대 중반의 제보자는 자손으로부터 부모에게 향하는 현실을, 이 제보자가 80대 후반이 되어서는 곧 다가올 미래의 시점에 자손으로부터 조상을 향한 관계에 방향이 지워져 있다. 말하자면 고�령의 노인들에게 초월적 세계는 실재하는 경험의 세계에 자리 매김을 하는 한편, 미래의 조상과 자손으로 시간을 확대하여 역사성을 확보한다.

제보자의 초월적 시간의식이 성스러운 시간으로 이동하는 동시에 시간의 확대가 일어나는 현상은 주민들의 생활세계, 각종 의례와 마을 행사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세계는 조상을 정점으로 하는 상층의 초월적 신들의 세계, 중간적 접이시대에 놓은 자손들의 생활세계, 외부인과 객귀를 위시한 하층의 타의 세계로 구성된다. 조상 세계의 상징인 묘와 신의 세계의 상징인 당산과 집안의 신들의 공간은 신성하여 새해와 하루의 시작은 이 성의 세계를 위한 시간들이다. 자손의 생활세계는 이 성스러운 세계의 보호 하에 운영되고 성스러운 시간 다음부터 주민의 일상생활은 시작된다. 주민의 생활세계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달래고 위협하여 배척해야 할 대상인 타의 세계에는 일상의 시간이나 공간은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임시적인 시간과 경계상의 공간만을 존재하는 매우 불안정한 세계이다.

연령 통과의례와 마을 행사는 노인들이 초월적 시간을 실제의 시간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 환갑과 진갑 잔치에서 자손들은 그들의 의식세계를 반영하는 형식으로 상을 차리고, 초월적 존재인 조상과 신들에게만 허용되는 상 앞에서의 절을 부모에게 한다. 제보자들은 자손의 세계에서 초월적 조상의 세계로 진입하는 전이시대에 위치하는 것이다. 설날은 차례와 성묘를 통해서 조상들을 숭배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고, 이어지는 2-3일 동안은 가까운 친족의 어른들을 방문하여 존중을 표하는 시간이다. 4일부

터 ‘수호신들이 인간세계에서 자리를 비운다’는 14일까지는 마을 노인들을 위한 시간으로, 노인을 모시고 사는 집안에서 마을 노인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한다. 조상과 신들의 신성한 시간 순서를 노인들에게 허용함으로써 노인들은 차기의 조상과 신으로서의 서열에 놓이는 것이다.

이러한 의례의 관행들은 노인 제보자들이 현실세계에서 초월적 세계를 실제의 세계로 경험하게 한다. 이렇게 하여 초월적 세계에 대한 의식적 시간이 실제의 시간과 동시화 된다.

IV. 논 의

인간은 생활 사건을 통해서 시간을 실제화 하고 정체성을 습득하므로 시간과 시간경험은 인간존재에 대한 물음에서 필수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간 이해에 필수적인 시간경험은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학문 분야마다 연구의 초점을 달리하고 있다. 심리적 현상학적 접근에서 시간경험은 인간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탐구되고 문화사회학에서는 문화의 핵심 요소로 (Hall, 2001; Clifford & Marcus, 2000), 그리고 간호학에서는 건강의 지표로서 탐구해 왔다(Engle, 1986; Newman & Gaudiano, 1984; Sanders, 1986; Smith, 1984). 이 연구는 시간경험은 인간 건강과 생존의 있어서 주요소이며, 생득적으로 주어지기 보다는 사회적 제요소에 영향을 받아 습득되는 문화현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제보자들의 시간경험은 보편적 공식적 시간이 아닌 동족의 비공식적 시간 중심의 폴리크로닉 관점과 노인 중심의 시간문화에 의해 형성된다. 제보자들이 고령화 되면서 주변 사람들은 물론 자기 자신의 시간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되고, 타자를 위한 시간에서 자기 중심의 시간을 구성하며 일상생활은 외부의 리듬중심에서 자신의 생체리듬 중심으로 전환된다. 시점의 시간지각은 감속되어 지루하게 느끼지만 과거의 역사적 시간지각은 가속화된다. 현 존재로서의 삶의 시간이 단축되면서 노인들은 관심을 조상과 자손으로 전환하여 정체성을 역사적으로 확대하고 자손으로서의 속의

시간은 조상으로서의 성의 시간으로 대체된다. 환갑과 제례 등 통과례와 명절의 관행과 각종 마을의 행사들은 의식적 초월적 시간과 실재하는 객관적 시간이 동시화 되는, 즉 시간의 동시성이 형성되는 기제로 작용한다.

아시아 전통사회는 공식적 시간보다는 비공식적 시간이 우선하는 특징이 있다(Hall, 2001). 시간 관점이 다른 사람들은 상호간에 어려움을 겪는다. 공식적 시간을 중시하고 전치된 시점양식(displaced point time)을 취하는 모노크로닉 관점의 서구인은 정해진 시간의 내용과 범위를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에 비공식적 시간이 우선하는 폴리크로닉 관점에서는 확산된 시점양식(diffused point pattern)을 주로 취하되 상황에 따라 두 시점을 적용하고 그 의미가 변화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사회적 계층이 크게 차이가 나는 사람과의 만남에서는 전치된 시점 양상을 적용하는데, 만일 이 때 확산된 시점양식을 적용하면 높은 지위의 사람은 권위가 상실되었다고 분노하게 된다. 전문직의 경우 확산된 시점양식을 가진 사람에게 전치된 시점양식으로 전환을 요구하면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Hall, 2003). 이처럼 비공식적 시간문화와 공식적 시간문화가 접촉할 때 사람들은 시간의 의미 파악과 대안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Hall, 2003). 연구에 참여한 노인 제보자들은 비공식적 시간문화를 지니고 있다. 간호는 그 업무의 특성상 철저하게 공식적 시간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실무분야이다. 그렇기는 하나 실무현장에서 간호사들은 환자의 의미사건 중심의 비공식적 시간관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환자-간호사 관계에서의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보자들은 노인중심의 시간문화에서 생활하고 있다. 노인중심 사회에서 제보자들이 사회적 규제에서 벗어나 타인의 시간을 구속하고 자신의 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생활을 한다. 말하자면 시간의 통제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등장한 시계는 시간을 측정가능하게 만들었고, ‘시계-시간(clock time)’을 통해 노동영역과 생활영역에 ‘규칙성과 조직성’을 스며들게 만들었다(Kim, 2000). 자본주의 발달

과 더불어 형성된 현대 도시사회에서 노동의 효율성과 속도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속도 역시 중요한 가치가 되고 속도를 통한 시공간의 점유는 권력의 수단으로 작용된다(Kang, 2002). 그렇다면 노화에 의한 속도의 저하는 현대사회에서 노인의 권력 축소와 지위하락을 가져오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문화 환경의 변화와 의식의 변화사이에는 지체현상(cultural lag)이 있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농촌의 외형과 생활양식이 도시의 그것과 유사해 지고 있다 해도 문화적 관습은 한동안 과거에 머물러 있기 마련이다. 또한 오늘날 노인들은 농촌거주자는 물론 도시거주자조차도 전통적 관습에 따라 생활해 왔다. 그러므로 현대 도시사회의 속도와 효율성에 대한 가치부여가 서비스 산업의 일종인 간호실무 현장에도 적용된다면 노인에 대한 간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자에게 익숙한 관행에 위반되는 간호행위는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보자들이 노인중심의 시간문화에서 생활하는 현상을 간호 실무에서 고려할 수 있다.

제보자들이 고령화되면서 자연과 다른 사람에 맞추어진 외적 시간에서 자신의 생체리듬에 맞추는 내적 시간표에 의해 의미를 구성하고 시간의식을 맞추어 간다. 일본을 위시한 동양사회는 자연과 인간을 독립된 실체로 보지 않고 하나의 통일체로 보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므로 인간의 시간은 자연의 시간과 동시성을 지니게 된다(Hall, 2003).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보자들이 청각기능과 활동기능이 저하되어 외계와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자연의 시간은 시간의식에서 벗어나고, 죽음을 현실로 인식하는 일부 제보자는 자신만의 시간표를 구성한다. 이는 죽음에 임박한 고령의 노인에게는 자연과 인간의 시간이 동시성을 갖는다는 통합적 간호모델의 주장이 적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적어도 제보자들에게 노화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시계를 구성하는 시기인 것이다. 이 현상은 특히 임종에 임박한 고령의 노인을 간호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보자들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시점의 시간은 느리게, 지나간 세월은 빠르게 지각하였

다. 물리적 시간과는 무관하게 시간이 빠르게 혹은 더디게 흐른다는 인상을 받는 것은 긴박성, 단조성, 다양성, 활동성과 관련이 있다(Hall, 2001). 진찰실에서 진료결과를 기다리는 중증 환자와 같이 긴박한 상황에서는 시간이 느리다고 지각하고, 일상 활동의 양이 줄고 반복되는 단조로운 것일 경우에도 시간은 느리게 지각된다. 반면에 기다림은 시간의 흐름을 가속시킨다(Kern, 2004). 본 연구에서 제보자들의 시간지각은 활동성 감소에 의해 순간의 시간은 길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필연적 죽음 사건에 대한 기다림, 비어있는 시간 즉, 유의미한 시간의 부족 등에 의해 시간의 흐름은 가속되었다. 이는 그동안 시간지각을 움직임의 속도와 자세 등 활동성과의 연관시킨 간호연구에 또 다른 차원의 시간지각 요인들을 제시해 준다.

노인 제보자들은 점차 성의 시간으로 진입해 가면서, 미래의 자손의 세계와 초월적 조상의 세계로 시간을 연장하여 정체성을 확대한다. 그동안 간호 분야에서는 실험연구와 조사연구를 통해서 연령별 시간지각의 차이, 우울과 시간지각의 관계, 주관적 건강상태 지각과 시간지각의 관계를 검증하면서 이를 ‘노화는 의식의 확대가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증거로 해석했고, 이러한 의식의 복합성 확대가 곧 건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Newman, 1987, 1996; Newman & Gaudiano, 1984). 그러나 제보자들의 시간의식의 확대는 활동능력이나 정서 상태, 건강지각과 연관되기 보다는 생활관행과 연령관련 의례, 죽음의 의례를 통해서 형성되고 강화되었다. 노화와 건강상태 등 신체적 문제는 활동능력의 감퇴를 가져와 시간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시간경험은 많은 사회적 문화적 제 요인들이 작용하는 보다 복합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다.

V. 결 론

이 연구는 전통적 행위규칙을 공유하는 사회의 노인들이 노화에 따라 다차원의 시간을 어떻게 경험하는가를 1990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현장조사를 통해서 탐색한 민족지이다. 노인들의 시간경험은 위계사회

의 노인중심의 시간운영 규칙과 고맥락의 의미 사건 중심의 폴리크로닉 관점에 의해 구성된다. 노인들은 점차 자신과 타인의 시간 통제권을 확보하고, 그들의 시간구성은 외적 시간중심에서 내적 시간중심으로 전환된다. 시점의 시간지각은 감속되나 과거의 역사적 시간지각은 가속화되고, 시간의 역사성이 확대되고 점차 성의 시간을 확보해 간다.

이 연구가 갖는 의의는 그동안 간호 분야에서 집중해 온 심리적 차원의 시간 즉, 주관적 시간지각을 객관적이고 물리적 차원의 시간을 통한 검증에서 벗어나 주관적 시간경험을 다양한 시간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밝혀냈다는데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공식적 시간 중심의 간호전문가들이 비공식적 시간 관점을 지닌 노인들을 간호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성이 높은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각 차원의 시간성 경험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현상학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노인의 중증 질환 발생이나 배우자 사별 등의 생의 위기 사건에서 노인의 시간경험이 어떻게 조직되는가를 근거이론 접근을 통해 밝혀낼 필요가 있다.

셋째, 속도와 시간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도시 주거 노인의 시간경험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Clifford, J. & Marcus, G. E. (2000). *Writing culture*. Berk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ho, M. O. (2003). A study of caring for the elderly by the families and extended families within a Korean clan village. *J Korean Acad Nurs*, 33(4), 495-502.
- Cho, S. G. (1985). *Namweon: History and culture*. Namweon: Chilseong Press.
- Eliade, M. (2003). *Das heilige und das profane*. (H. J. Cho, Trans) Seoul: Hangil Publishing Co.
- Engle, V. F. (1986). The relationship of movement and time to older adults' functional health. *Res Nurs Health*, 9(2), 123-129.
- Gaut, D. A. & Leininger, M. M. (1990). *Caring: The compassionate healer*. New York: National League for Nursing Press.
- Hawking, S. (2001). *The illustrated a brief history of time*.

- London: Labyrinth Publishing.
- Hall, E. T. (2001). *The silent language*(H. S. Choi, Trans). Seoul: Hangil Publishing Co.
- Hall, E. T. (2003). *The dance of life: the other dimension of time*(H. S., Choi, Trans). Seoul: Hangil Publishing Co.
- Kang, N. H. (2002). *Space, body, and power*. Seoul: Moonhwa-guahak Publishing Co.
- Kern, S. (2004). *The culture of time and space*(S. G. Park, Trans). Seoul: Humanist Book Co.
- Kim, W. B. (2000). *City, space, and life world*. Seoul: Hanwool Publishing Co.
- Lee, G. G. (1975). *Structure of Korean family*. Seoul: Ilgi Publishing Co.
- Leininger, M. M. & McFarland, M. R. (2002). *Transcultural nursing*(3rd ed.) New York: Mcgraw-Hill Medical Publishing Division.
- Newman, A. M. (1976). Movement tempo and the experience of time. *Nurs Res* 25(4) 273-122.
- Newman, A. M. (1982a). Time as an index of expanding consciousness with aging. *Nurs Res*, 31(5). 90-293.
- Newman, A. M. (1982b). Movement and time as correlation of Health. *Nurs Res*, 31(2), 121.
- Newman, A. M. (1987). Aging as increasing complexity. *J Gerontol Nurs*, 13(9). 16-19.
- Newman, A. M. (1996). *Health as extending consciousness*(2nd ed)(H. Y. Kang, Trans). Seoul: Hyunmun Publishing Co.
- Newman, M. & Gaudiano, J. K. (1984). Depression as an explanation for decreased subjective time in the elderly. *Nurs Res*, 33(3), 137-139.
- Sanders, S. A. (1986). Development of a tool to measure subjectivity time experience. *Nurs Res*, 35(3), 178-182.
- Shin, K. L., Cho, M. O., & Kim, J. S. (2005). The meaning of death as experienced by elderly women of a Korean clan. *Qual Health Res* 15(1), 5-18.
- Smith, M. J. (1975). Changes in judgement of duration. *Nurs Res*, 24(2). 93-99.
- Smith, M. J. (1979). Duration experience for bed-confined subjects. *Nurs Res*, 28(3). 139-144.
- Smith, M. J. (1984). Temporal experience and bed rest. *Nurs Res*, 33(5), 298-302.
- Smith, M. J. (1986). Temporal experience and bed rest. *Nurs Res*, 35(5), 298-302.